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18일 한바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중앙 권한 이양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통합 반대, 덩치만 키우면 저출생·지방소멸이 해결된다는 행정통합 반대, 허울뿐인 북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계획 반대를 외쳤다.

경북도민 기만 행정통합 결사 반대 항거 거세

중앙 권한 이양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통합 반대 덩치만 키우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된다는 행정통합 결사 반대 빛좋은 북부권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계획 반대...꼭 무산 시킨다

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 항거가 너무나 거세다. 18일 안동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과 안정의 연속이었다. 안동시·예천군의회가 손잡고 발표한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은 과묵으로 치닫는 형세다.

■안동주민설명회반대항의
안동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는

포항, 경산에 이어 경북지역에서 3번째다. 설명회는 안동시청 영남홀에서 열렸다. 이날 2000여명의 주민들은 TK 행정통합에 관한 추진 경과와 내용, 과제 및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까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추진의 배경과 이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격론을 펼치자 객석에 앉아 있던 주민들도 덩달아 격앙되기 시작했다.

"대구경북특별시장은 어디에서 근무하는가"라는 권시장의 물음에 김실장이 "정시는 3개월 만드는데 답답하진 않겠는가"라며 무책임한 소리를 내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좌장인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이 장내를 정리하며 권시장에게 자리를 앉으라고 권하자 시민들은 "권 시장도 시민이다. 시장이

주민의 대표"라고 반발했다. 고성과 안정 속에 문답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강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오전 9시 40분에 안동·예천 지역주민들과 시, 군의원, 시장, 군수 등 2000여명이 설명회장 앞에서 행정통합 반대 집회를 가졌다.

도는 오는 20일 구미에서 마지막 순서로 서부권 주민설명회를 가진다.

■안동예천행정통합 결사반대
안동예천이 톱풀뭉쳐 행정통합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한마음으로 성명을 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18일 안동시청 대동관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설명회에 앞서 한목소리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공통분모로 한 예천과 안동·신도시 사회의 우려가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 경북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북부권 지역의 철박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기창 시장과 김학동 군수는 성명사에서 중앙 권한 이양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통합 반대, 덩치만 키우면 저출생·지방소멸이 해결된다는 행정통합 반대, 허울뿐인 북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계획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흡수돼 지방자치가 오히려 저해될 수 있고, 통합정부가 대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본청사가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비전이라며 비판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영구 예천군

의회 의장도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양 시·군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도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예천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공개대회를 열었고, 15일에는 경산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예천군에서는 1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권기창 시장과 김학동 군수는 "도청 이전이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통합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경북지역 시군의 뜻을 모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 단재장일정 !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오전 엑스코 동관에서 열리는 '2024 대구 국제 기계산업대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9일 오전 포항에 있는 대도중학교 교실중추 현장을 방문한다.

경북 곳곳 영하권, 울릉도 첫눈 의성 -3.9도

출근길 장갑·털모자 중무장 울릉·독도 강풍특보 발효... 올 가을 '최저' 기온 기록

18일 출근길에 나선 대구 경복민들이 장갑과 털모자,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북쪽에서 찬 기운이 남하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푹 떨어진 탓이다. 경북 일부 지역은 올 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의성 -3.9도, 영덕 -3.1, 포항 4.2도, 울진 4.9도, 울릉 5.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의성 육상 -4.5도, 군위 의흥 -4도, 안동 예안 -3.9도, 봉화 석포 -3.1도, 청송 -2.9도, 칠곡 팔공산 -2.7도, 영양 -2.6도, 김천 대덕 -2.2도, 상주 화서 -1.9도, 예천 지보 -1.1도, 경주 산내 -0.9도 등 경북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낮에도 순간 풍속 초속 15m(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기온이 평년(최고 11~15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에는 첫눈이 관측됐다.

울릉도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1일 늦게, 평년보다는 2일 늦은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국의 기온은 19일까지 평년(최저 -3~7도, 최고 9~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황태웅 기자

주낙영, 2025 APEC 역대 가장 훌륭하고 멋진 행사...

주낙영 경주시장, 윤 대통령 예방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 시장 등은 페루 현지 언론사에 "내년 경주 정상회의는 역대 가장 훌륭하고 멋진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경주 APEC은 경주의 문화와 역사, 한국경제의 미래산업에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APEC회의는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열리며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명이 참가한다. 경주시는 2024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주 시장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리마 웨스틴호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의 이동현 경주시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이락우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주시 대표단에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경주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APEC 경주 정상회의와 관련 외신 기자들과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시찰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용찬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결으로 다가갑니다!

적라봉사회, 나눔으로 따뜻한 정 나뉘

군위군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적라봉사회는 지난 17일 회장 자택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3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나눔 활동은 희망풍차나눔가게의 후원과 회원들의 자제 회비로 마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라봉사회는 매년 백숙 및 떡국 나눔, 도시락

과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남탁옥 회장은 “회원들이 각자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하신 모습을 확인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오늘 막올라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최신기술 트렌드 한눈에
252개사 669개 부스설치

‘제25회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9~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 전시회는 252개사 669개 부스의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재·부품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이자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산업이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자동화를 넘어 자율제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완성품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모인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으로 구성된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은 157개사 483부스

규모로 조성된다. 스마트공장 구현기술, 첨단 공작기계·설비 등이 전시된다. 기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구·금형, 제어계측·검사기기 등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전환(DX) 특별관이 운영된다. 특별관내 DX테마관에서는 인터엑스,아이티스코,더블유비에스 등의 기업들이 참가해 산업디지털 전환을 이끌 AI(인공지능)솔루션, 환경 규제 대응 솔루션, 자율공장 솔루션 등을 소개한다.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에는 국내외 첨단소재기업 94개사가 참가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부품 소재 기술들을 선보인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관’을 조성한다. 세아원일특수강, 화진기술, 알맥 등 15개 기업이 참가해 소부장 R&D 우수과제와 성과를 선보

인다. 공군 군수사령부의 항공 부품을 비롯해 중수 테크, 케이알엠 등의 방산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방위산업 소재부품 특별관’을 꾸며 방산부품의 국산화 성과를 소개한다. 첨단소재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특별관’도 조성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확대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출상담회(19일), 대기업 구매상담회(21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조여은 기자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 개최

대구교육청,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 키우고
‘꿈’ 펼치도록 지원...

대구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3개 나라의 학생과 한국어 교사 등 35명을 초청,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을 연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8월까지 미국 LA,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호주 시드니 등 3개국에서 학생

79명이 참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말·맛·맞’ 나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행사는 이틀 3개 나라의 한국어교육원을 통해 선발된 한국어 우수 학생 29명(미국 9명, 우즈베키스탄 10명, 호주 10명)과 한국어 교사 6명 등 35명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구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3개국 방문단은 지난 17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방문단은 청와대, 경복궁, 서울한방진흥센터 등 한국의 전통적 장소를 방문하고 118일 대구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인사동 거리와 롯데스카이라워, 광장시장 등 한국문화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장소들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황태용 기자

생신 축하 그리고 김장김치... 따뜻한 精

군위읍,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달성군, 김장 나눔 행사 온누리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정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김장김치 나눔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89세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과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5일 생신을 맞이한 관내 89세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했다. ‘생신축하합니다’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왕래가 없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생신을 챙겨드리면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생신상에도 뚜레쥬르가 생신케이크를 민속떡집이 떡을, 행복꽃집이 꽃화분을, 영이네과일가

페가 축하용품 및 과일케이크를 후원하여 풍성한 생신상을 준비했다. 생신상을 받은 어르신은 “생각지도 못한 생일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쁘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보낼 생일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관철 군위읍장은 “작은 정성에 크게 기뻐하는 어르신을 보며 이웃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느꼈다.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과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플러스 김장나눔 행사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참살이농장에서 6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24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단체는 매년 김장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한다.

행사는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및 보훈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나눠드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 준비는 김장재료 구입부터 시작된다. 올해 센터는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참살이농장을 통해 김장재료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김치 버무리기와 포장작업을 거쳐 완성된 1300포기의 김장김치는 관내 보훈단체 회원 270명에 전달됐다.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을 통해 김장김치를 지원받은 주민은 총 1440명에 달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보훈대상자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한 보훈정책 수립 및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박재성 기자

iM뱅크, ‘iM LIVING 카드’ 출시



iM뱅크는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iMLIVING 카드를 출시했다. ‘iMLIVING 카드’는 ‘생활요금’과 ‘생활쇼핑’ 영역에 집중한 할인 혜택을 준다. 생활(LIVING) 밀착형 할인 혜택에 집중한

상품 특징을 상품명(LIVING)에 의미를 담고 있다. 은은한 색을 배경으로 톡톡 튀는 색깔의 아이콘을 배치한 카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이는 각 할인 영역을 단순화해 나타낸 것으로 가시성을 높였다. ‘생활요금’ 영역에서 정기적인 공과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아파트관리비, 전기가스비, 전기요금, 이동통신, 스트리밍 자동이체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쇼핑을 비롯해 배달앱, 대형마트, 다이소, 올리브영 등 생활 밀착형 쇼핑 가맹점에서도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황태용 기자

계명문화대, 전국 최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대학

우수 교수학습센터 선정
교육지원 체계마련 구축

계명문화대학교가 최근 학생들의 학습지원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교수학습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020년 교수지원 분야 선정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박승호 총장은 “2020년 교수지원 분야에 이어 이번엔 학습지원 분야에서 우수 교수학습센터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대학임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 스스로가 학업에 매진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습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KCTL)가 주관하는 우수 교수학습센터 선정 사업은 미래 교육 대응 및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우수 교수학습 지원 모델 발굴, 성과 확산으로 전문대학 교수학습 운영의 활성화와 질 향상을 꾀한다. KCTL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교수학습 운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교수지원, 학습지원, 원격교육 등 3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1개 대학을 우수 교수학습센터로 선정해 인정을 받는다. 계명문화대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KMCTL BEST 2.0’을 구축해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 결과 이번엔 학습지원분야에서 우수 교수학습센터로 선정됐다.



사진은 계명문화대학교 도래 학생 학습지원단인 ‘러닝 서포터즈’ 모습(사진=계명문화대 제공)

대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으로 ‘BEST LEARNING 2.0’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심화·혁신의 점진적 3단계로 세분화해 단계별 특성과 위계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고 있다. 동료 학생들끼리 학습지원, 학습방법 개발 및 공유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학습지원단인 ‘러닝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학의 학습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지)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청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부자가 머니(money)?, 어린이경제뮤지컬 제작 공연			육연연구소가 공연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해 제작했다. 어린이경제뮤지컬 '부자가 머니(money)?'는 미국의 스티브 잡스와 대한민국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통해 부(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부자를 다뤘다.
	경북도는 1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경제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인 전달 방식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을 매개로 재미있게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 부설 자녀경제교	
	공연은 경북도가 소비자 경제교육의 하나로 일방적			



울진 들넉특구 주주형 상생모델 성공작

경북 농업대전환 다양한 모델 성공적 정착 확산… 대한민국 농업 새로운 생존의 길 만든다

울진 들넉특구 주주형 상생모델이 성공작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8일 울진군 평해읍에서 '경축순환특구'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경북 농업대전환의 주주형 상생모델로 축분을 이모작 농경지 양분으로 활용해 생산된 조사료를 다시 한우에 양질건초로 순환하는 보고회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은 공동영농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고령농은 배당금으로 소득을 높여 다 함께 잘 사는 농업대전환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경북 농업대전환의 다양한 모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밝혔다.

들넉특구는 민선 8기 이철우 경북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경북 농업 대전환의 하나로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영농과 6차산업을 융복합한 농산업 혁신모델이다.

농업기술원은 밀밸리·식량작물·경축순환 등 3개 유형 4개 들넉특구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울진군수, 관계 기관·단체, 들넉특구 참여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대전환 울진 들넉특구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특구에 참가하는 대표 농가에 소득배당증서를 전달했다.

울진 경축순환특구는 청년이 주축이 된 '행복농촌만들기법임'이 지난해부터 120ha 농지에 벼와 콩, 밀과 조사료 등 이모작 공동영농을 하고 있다.

올해는 공동영농 농지를 140ha까지 확대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가루쌀 생산단지도 운영했다.

그 결과 140ha의 논에 벼농사만 했을 경우 13억 4400만 원에 불과한 생산액은 이모작으로 전환 뒤 22억 4000만 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참여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고령의 농업인들로 공동영농을 통해 경영비는 줄이고 이모작으로 생산 소득은 증대됐다.

과중 작업부터 수확은 물론 생산물의 판매와 유통까지 법인에 일임하고 높아진 소득은 농가에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이모작 영농대행으로 공동영농에 참여한 최상빈 농가는 평(3.3m²)당 4400원 영농소득을 배당받아 직접 벼농사를 지었을 때(평당 2170원)보다 소득이 2배 높았다.

논을 법인에 완전히 맡긴 이혜순 농가는 평당 3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기존 농지 임대 시(평당 1300원)보다 2.3배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됐다.

울진 특구는 70ha에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해 350톤을 생산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사료 열풍건조기를 도입해 양질의 건초로 가공, 소포장(15kg) 단위로 유통하는 시스템도 완공했다.

시간당 800kg의 건초를 생산해 특구와 연계한 축산단지에 공급하고 가축분은 발효퇴비로 만들어 특구 내 농지로 환원하는 저탄소 농법도 실천하고 있다.

청년과 농촌 마을문화를 접목하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황금들넉 농부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넉 맨발걷기 등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추가로 소득을 증가시킨다.

경북도는 한·육우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 연간 808만 톤의 축분이 발생해 전국 축분의 약 14%에 해당, 축분의 효율적인 순환 처리를 위한 울진 경축순환특구 모델은 축분 자원화 정책에 도 부합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바람직한 모델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김성용 기자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경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실시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낯선 이국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 경북 인성교육 방향 찾아

2025년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경북교육청은 18일 구미에 있는 경북교육청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인성교육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명회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경북교육청이 추진한 인성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5 경북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경북 인성교육은 '나의 소중한 깨닫기'에서 출발, 교육과정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경북형 인성교육인 '온(溫-ON) 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 기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과 인성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등 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인성 온(溫-ON) 자람 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주제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민

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과 학부모 학교 참여 기회를 넓힌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 인성교육 지원에 더욱 힘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 가족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경북형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명주 기자

포항시민들, 포항시의회 집중포화 날렸다

포항시민·사회단체 뭉쳐 골프장 부지 터 공유지 매각 부결 촉구

포항시민·사회단체가 톨톨뭉쳐 포항시의회를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포항시의회는 포항 SKGC 골프장 공유지 매각을 부결하라는 게 이유다.

포항SKGC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와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골프장 터로 함부로 팔아넘기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SKGC는 부지 내 공유지 매수 신청을 냈다. 현재 포항시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해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공유지 매각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반대대책위 등은 "자치행정위가 골프장 건립 예정지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공유지(34만 9776㎡)에 대한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며 "골프장은 전체 부지 102만 4287㎡가 자연 녹지이고, 임야가 95.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골프장에서 7.2km 떨어진 하류에 형산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이어 상수원·중명 취수장과 유강·택전 정수장 있다"며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과 토양을 오염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 연일읍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고, 골프장 건설 부지에 급경사가 다수 포함돼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집중 호우 때 지반과 사면이 불안정해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SKGC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가 (주)SKGC의 골프장 건립 예정 부지 내 공유지 매각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입장문을 밝히는 모습.

반대대책위 등은 "시의회에서 공유지 매각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시민의 공유 재산이자 숲을 지켜낸 의정활동의 소중한 성과이고, 시민의 숲을 팔아넘기고 파괴하는 데 동조한다면 집행부와 공범으로 낙인찍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대구 아파트 4개월 만에 상승곡선

대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2억5800만 원으로 전월과 가격 변동이 없었다.

지난 5월(2억6400만 원) 하락 전환 이후 6개월 만에 내림세가 멈춘 것이다. 지난해 10월(2억

6500만 원)에 비해서는 6.64%(700만 원) 하락했다.

중위 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구·군별로는 북구와 수성구, 중구가 2억1100만 원, 4억5000만 원, 4억2750만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0.71%(150만 원), 0.44%(200만 원), 0.23%(100만 원) 올랐다. 조여은 기자

주유소 흡연… 과태료 500만원

경북소방,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흡연 과태료

경북소방본부는 18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위험물 취급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위험물 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영덕읍, 취약층 이불빨래 지원

영덕군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취약계층 7가구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 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때가썩! 맘에 썩! 이불 빨래 지원 사업’을 지난 15일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과 영덕읍 직원들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수거한 이불을 인근의 빨래방을 이용해 세탁·건조한 후 당일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진행된다.

박현규 공공위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송사과 홍보행사 진행

청송군은 지난 14일 한국농촌지도자 청송군연합회 주관으로 전북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서 ‘청송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품으로 자리잡은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청송사과의 차별화된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식 행사와 함께 품종 소개, 사과 농가와와의 만남 등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송사과의 매력을 한층 더 알렸다.

권순욱 한국농촌지도자 청송군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송사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24시간 민원 상담... ‘바로봇’ 운영

8분야 250개 민원 항목 대응
기존 상담 체계 한계 보완
카카오톡 ‘바로봇’ 친구 추가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발전”

경주시가 19일부터 24시간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챗봇 서비스 ‘바로봇’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챗봇 서비스 ‘바로봇’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경주시는 업무시간 동안 바로콜센터에서 4명의 상담사가 민원 전화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해만 11만 건의 민원을 상담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기존 상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바로봇’이라는 이름은 ‘경주시바로콜센터’의 ‘바로’에서 따왔다.

이 챗봇은 관광, 세정, 교통정보,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250개 민원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카카오톡에서 ‘바로봇’을 친구 추가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바로봇’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상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바로봇’을 통해 시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청송군 신규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발굴

청송군은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3기 청송어람’ 정책개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제3기 청송어람에는 신규 공무원 30명이 참여해 6개팀으로 나눠 농업, 관광, 복지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활동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다.

약 1년 동안 전문가의 정책개발 멘토링을 통해 선정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공식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타 지자체 견학 및 정책개발 워크숍 활동 등을 진행했다.

제3기 청송어람 정책개발 보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윤경희 군수와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했으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청송군 생활 밀착형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과 ‘청송형 공동육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송군 생활 밀착형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가 산재해 있어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생활 밀착형 정보제공 플랫폼을 개발해 주민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청송형 공동육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청송 맞춤형 공동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윤병문 기자



포항관광사진공모전, 도시브랜드 홍보 활용

공모 총 255점 열띤 경합
입선 30점 최종 선정 영예

포항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16회 포항관광사진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와 포항예술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가 주관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포항

관광 사진이 출품돼 총 255점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가작 5점 △장려 5점 △입선 30점이 최종 선정됐다.

우명석 작가의 ‘희망의 아침’은 포항의 자연경관을 신선한 시각으로 담아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도심 속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상누각, 그리고 장미원을 배경으로 일출 장면을 촬영한 작품으로 포항의 상징적인 풍경으로 도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층 돋보

이게 했다.

서재원 정무특보는 “이번 공모전으로 포항의 관광 자원이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금상 수상작은 많은 관광객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 입상작은 향후 포항 관광 마케팅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수상작들은 각종 관광 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게 된다.

영덕, 시장 폐기물 마대 80kg→20kg 변경

영덕군은 지난 4일을 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 80kg을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20kg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본역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

행 지침을 반영한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기존의 80kg 용량의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는 너무 무거워 불편함이 있는데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여은 기자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구미시 선산마음마켓 행사

구미시는 구미시농촌협약지원센터와 협력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 활성화화를 위해 지난 16일 선산 뒷골 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선산마음마켓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산에 거주하는 마을 활동가와 청년예술가가 주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수 만들기, 종이 화분 만들기, 인절미 떡매치기, 전통악기 체험 등이 운영됐다.

선산 뒷골체육공원의 공간을 활용해 주민, 마을활동가,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은 도시민들에게 따뜻한 선산 마을의 정서를 전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했다.



김천 남면, 산불예방 대회

김천시 남면 행정복지센터는 가을철 건조해진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교육 및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개최된 결의대회는 기관장, 단체장, 이장,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및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후에는 먼 소재지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광수 남면장은 “산불예방 활동은 우리 면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며 “면민 모두가 아름다운 남면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미 유망기업 지원... 기업 성장 '선순환'

소규모·허리·선도 등 3단계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
지원 받은 9개 기업 선정 평가

구미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편입돌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소규모, 허리, 선도로 나눈 3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허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허리기업은 반도체, 방산, 신전자 산업 등 첨단 소재·부품·모듈을 생산하며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시는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을 통해 총 9개사를 집중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전략 수립, 기술 혁신, 사업화 촉진 등의 패키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각 기업에 전담 프로젝트 매



니저(PM, Project Manager)를 배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과 극대화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부품 제조기업 (주)양우는 상용화 개발 및 생산 고도화 지원을 통해 부티케어 기

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인증을 완료해 9월부터 국내 대기업에 공급을 시작했다. 또, TV 부품제조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3배 향상시키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공정부품 제조기업인 (주)에스와이텍은 디지털 전환, R&D 기획,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구미시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30억 원 규모의 제2공장을 준공하며 반도체 공정 부품 생산을 위한 입고, 가공, 검사 전 공정을 자동화했고, 이를 통해 반도체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이 회사는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을 통해 매출 성장에 예상된다.

이외에도 구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7개 기업 역시 제품의 양산 체계 확립과 함께 매출 증대와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따라 기술성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이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영주 기자

의성군 불법주정차 증가... 신고제 운영 개선

안전지대 등 총 7곳 신고대상
한명 하루 3회 신고 제한 폐지

의성군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월 1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의 '인도(人道)·교차로·버스승강장·건널목·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안전지대 등 총 7곳'이 신고대상이다.

개선되는 사항으로 먼저 인도 주차는 신고가 가능한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야간보행자의 보행안전에 위하여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사람이 하루에 3회만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횟수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5조 5항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4,831건으로, 이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수는 607건이며 1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운전자와 군민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스포츠산업경제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마케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제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성군스포츠산업경제연구회'가 11월 15일 의성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최훈식의장과 이경원의원(대표의원), 김현찬의원, 박선희의원, 박화자의원, 지무진의원을 비롯한 새마을교육과장, 의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 내용의 결과와 의성군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고회 내용으로는 의성군 유소년 스포츠 육성 방안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극대화 방안, 또 이를 통한 의성군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미래 전략 등이 제시됐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경원 의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들이 제시된 것 같아 고무적이며, 우리군에 적합한 맞춤형 유소년 스포츠 정책을 구상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역시 "연구용역은 마무리하였지만 이로써 끝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의성군이 스포츠 융복합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7월부터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관련 정책의 제안, 의안 발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 수료식

한전 경북본부·의성읍·한전MCS
실종예방 방지 장치 등 사업 추진



상주시가족센터에서는 14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및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어 교육은 상주시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3개반으로 구성되어 수준별·주제별로 나누어 각 신청자가 자신의 한국어 수준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을 성실히 마친 대상자들 위한 격려와 축하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올해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등을 하며 다양한 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은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 문경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932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내습지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MG 문경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안동 이품봉사단, 활동 활발

안동시 (사)이품봉사단은 서구 동 관내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배와 천장 보수 작업을 통해 어르신이 안락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맞춤형복지팀과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이품봉사단이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1박 2일에 걸쳐 진행됐다. 적십자봉사단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고, 이품봉사단은 전기 안전점검과 전선교체, 천장 보수와 도배 작업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섬세하고 세심하게 진행했으며,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예천 풍양 부녀회, 김장 나눔

예천군 풍양면 새마을부녀회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5일 전날 미리 다듬고 절인 배추 500포기를 풍양면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김장한 김치 118박스를 마을별 경로당과 요양원, 독거노인 등 소중환 이웃들에게 배부하였다.

특히 아침부터 우천으로 힘든 작업이 예상되었지만 부녀회원 외 각 기관단체에서도 손길을 보태어 행사를 오전 내 원활히 마무리했다.



영주시 선비세상, 한지공예 운영

영주시 선비세상에 한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매우 토요일마다 가득 채워진다.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선비세상 한지촌 한지문화관에서 '이색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한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보는,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미니 거울부터 무드 등까지 다양하고 실용적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12월에는 성탄절을 맞아 25일에는 특별 체험도 진행될 예정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한층 더해 줄 가랜드와 산타, 루돌프 티코스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안동의료원 의료진 보강... 필수의료 강화

산부인과 · 응급 · 외과전문의 영입
일시 공백 있던 외과 진료 재개
산부인과 · 소아과 ONE-hour 참여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전문의를 영입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동의료원은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로 김병준 과장을 영입했다. 김병준 과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포항의료원 및 대구 파티마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과장직을 맡아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본원 산부인과에서는 산전 검사, 고위험 임신, 난소 종양, 부인과 질환, 복강경 수술 등을 중점적으로 진료한다.

응급의학과에는 고승현 실장이 합류했다. 고승현 실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실장 및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교수로서 뛰어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고승현 실장은 안동의료원의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4월부터 공백이 있던 외과 진료도 재개됐다. 외과 진료는 이현도 과장이 담당하게 되며, 그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 탈장 수술, 화상 치료, 피부 양성 종양 수술, 치핵 및 치루 수술 등 다양한 외과적 진료를 제공한다. 이현도 과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을 수료한 후, 외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이국현 원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양질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의료원은 지난 6월 소아청소년과 김기호 과장을 영입한 데 이어, 이번 산부인과 전문의 영입을 통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5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내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영주 기자

봉화, 림피스킨 방제램프 지원

봉화군은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림피스킨 등 법정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을 위해 2025년도 한우농가 림피스킨 방제램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림피스킨 방제램프는 축사 내에 설치하는 전기램프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모기 유입을 차단하는 기기로서 연막소독과 같은 화학적 방제는 환경오염과 가축피해 우려로 살포에 어려움이 있다.

모기 퇴치용 램프는 축사 내에 상시 설치하는 물리적 방제 장비로 친환경적으로 모기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한우 사육농가이며, 지원단가는 램프 한 개당 9만4천 원으로 농가별 축산업 등록증 축사면적 20㎡당 1개(소 사육두수 5마리당 1개)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림피스킨 방제램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한우 사육농가는 이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축산업등록증 축사면적을 확인해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림피스킨은 소와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혹)을 특징으로 하는 소의 급·만성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열, 식욕부진, 우유생산 급감, 가축손상, 유산, 수소 불임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전파경로는 주로 침피리, 모기류 등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알려져 있다.

한편 림피스킨은 작년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11월 20일까지 전국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8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6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한우 사육농가에 병해충 방제램프 지원사업을 통해 림피스킨의 전파 매개체인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댐 전국 건강전기대회 6천여명 참여

용마루 2공원 일원 반환점 경유
셔틀버스 · 자유로운 현장 접수 등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4 영주댐 전국 건강전기대회'가 16일, 영주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주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온 6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9시 50분 동호이주단지 삼거리를 출발해 용마루, 용두교, 용마루 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하는 코스를 걸으며 영주호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걷기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과 자유로운 현장 접수로 편

리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도 호평을 받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대회 현장에서 "이번 걷기대회는 홍수 피해 저감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영주댐의 수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영주댐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성탄트리 점등식... “행복한 연말 기원”

이웃돕기성금 전달식 가져
영양군기독교연합회 참석

영양군에서는 영양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15일 오후 5시 30분 군청 앞 솔광장에서 영양군기독교연합회 회원 및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1부 행사에는 찬송을 시작으로 김강식 목

사의 성경 봉독, 송승영 영양군기독교연합회장의 설교,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이웃돕기성금 전달식 및 성탄트리 점등식으로 희망의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개최되는 성탄트리 점등식은 경제 불황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탄트리를 감상하며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소망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송승영 영양군기독교연합회장은 "성탄트리의

밝은 빛은 우리 주변의 어둠과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빛이 되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어 군민들께서 사랑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성탄트리 점등을 통해 올해 이례적인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가족들과 포근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2025년 영주시 SNS 홍보단 20명 모집

매월 1건 이상 콘텐츠 제작
내년 한해 동안 활동 예정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5년 영주시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

SNS 홍보단은 영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 관광 정보 등을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지역 홍보의 역할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18세 이상 지역 제한이 없는 일반인 15명 1영주시 소재 대학생 5명이다. 영주에 관심을 갖고 매월 1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홍보단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영주시의 축제, 시정 소식, 관광, 명소, 맛집, 문화, 생활정보를 취재해 SNS 콘텐츠로 소개하게 된다. 또한 시 공식 SNS 계정의 모니터링과 댓글, 좋아요, 공유 등으로 콘텐츠의 파급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imoo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인과 대학생 신청서를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서류 마비 시 접수에서 제외된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부천시 공무원, 축구동호회 교류

스포츠 매개로 소통 강화
향후 교류 계획 등 논의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부천시에서 열린 '2024 부천시-봉화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화군 부군수를 포함한 대표단과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부천시 공무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 10월 15일 부천시 방문단의

봉화군 방문과 연계된 행사로, 당시 두 도시는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경과와 향후 교류 계획을 논의하고 봉화군의 우수 정책 현황을 탐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는 스포츠를 매개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 부시장의 환영사와 배진태 봉화군 부군수의 답사로 시작해 친선 축구경기와 부천시 부시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으로 이어졌다. 두 도시 동호회는 기념품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다졌고, 대표단은 만찬 자리에서 상호 우의를 돈독히 했다.

전상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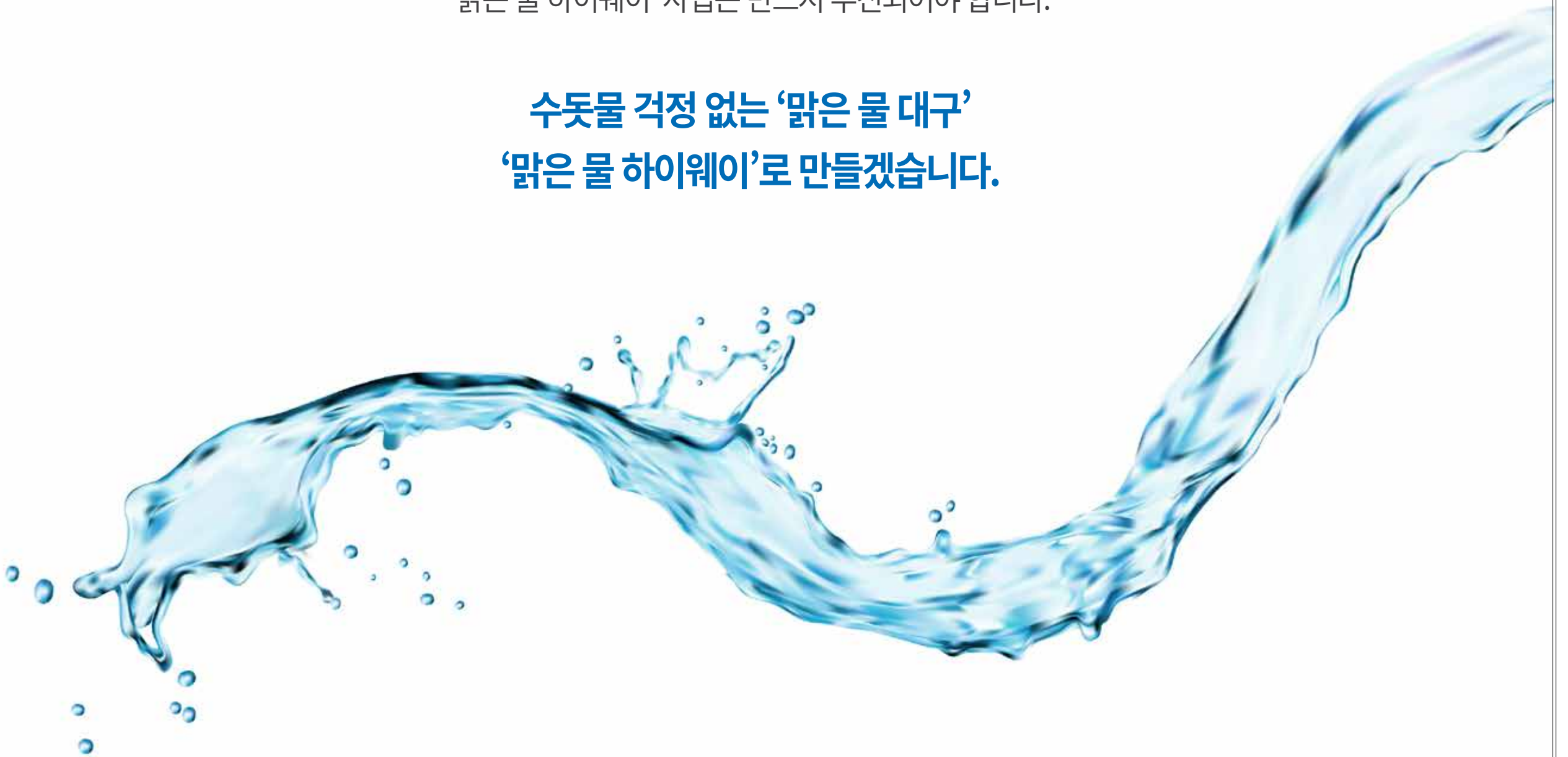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250만 대구시민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30여년간 이어온 대구시민의 염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위해
안동댐 1급수를 대구로 직접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로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수질 좋은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